

지역 매아리



청소년을 위한 과학 강연회
태인 명봉도서관서 열려

지난 28일 전국 32개 도서관에서 일제히 열린 전국 청소년을 위한 과학 강연회인 '10월의 하늘'이 태인 명봉도서관에서도 진행됐다.

카이스트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가 2010년 개인 SNS에 '저와 함께 강연 기부를 해 주실 과학자 없으신가요?'라는 글을 남기면서 시작된 '10월의 하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국 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돼 올해로 8번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정재승 박사를 비롯해 이정모 관장(서울시립과학관), 김범준 교수(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등이 청소년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 소통했다.

명봉도서관은 지역 중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따라 매년 이 강연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미란 관장은 "재능기부 과학자 과학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농촌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강연회가 농촌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기자

연지사가번영회 · 주민자치위원회
관광객들 따뜻한 차(茶) 대접

연지사가번영회와 연지동주민자치위원회가 정음역 광장에서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차(茶)를 대접했다.

두 단체 회원들은 지난 28일과 29일, 열차를 이용해 정음을 찾은 이들에게 직접 끓인 생강차와 커피를 제공했다.

회원들은 "관광객들에게 정음의 관문인 역(연지동)에서부터 정음의 따뜻한 정을 함으로써 훈훈하고 마음 편하게 정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정음이라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차를 대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4일과 5일에도 차 대접에 나설 예정이다.

회원들은 "많은 분들이 차를 마시고 고맙다며 인사를 건네와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정음의 관광명소 등을 안내하는 관광가이드 역할까지 한다는 자긍심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기자

어촌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기여

부안군 변산 앞바다에 첫 통합양식장 조성

부안군 변산 앞바다에 처음으로 통합양식을 위한 양식장 조성에 양식업인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통합양식은 지난 5월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보조 3.5, 자부담 1.5)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양식어업인은 새만금 내의측 7개 어촌계(대항 문포, 조포, 창북, 장신, 둔지, 백련)가 변산반도 통합 양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공동투자, 공동배분의 원칙으로 통합양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부안군에서 새만금권역사업으로 상실된 어장에 대하여 통합양식 신규어장 60ha를 개발하여 새만금 내측 어촌계 활성화는 물론 양식어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어촌계를 만들 가고 있다.

통합은 일명 참답지라고도 부른다. 분포범위가 넓어 우리나라의 전 연안에서 볼 수 있으나 남해안에 많다. 서식장은 해수비중이 높은 고함수역(古鹹水域)인 외양에 면해 있는 연안(淺灘)에 조성되고 여기에 족사(足跡)로써 부착하여 생활한다. 서식 수심이 5~10m 되는 곳에 많이 살고 있다.

또한 통합은 난생형으로서 산란기간 봄에 산란한 알을 해수 중에서 수정한 다음 발생하여 3~4주일 간 부유생활을 하고 곧 부착생활로 들어간다.

통합의 효능은 절름, 갈륨, 인 등이 풍부하고 빈혈예방에도 좋으며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기능 보호에도 좋아 술안주로도 제격이라고 한다.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방지도

좋다고 한다.

이번 통합양식은 10말~11월초까지 양식장 조성 7ha와 수하연(부착기)을 설치완료하고 통합의 주 산란기간 내년 3~4월경 자연 채묘하고 성장 성육과정을 거쳐 내년 겨울철에 생산을 할 계획으로 생산량은 350톤, 어촌계 공동소득액은 4여억 원의 소득을 올릴 목표로 통합양식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는 통합을 1차 양식어업에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목으로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통합양식을 통해 수산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는 양식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아침 등굣길 프로젝트' 진행

고창군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평소 아침을 자주 굶는 청소년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면서 청소년활동의 다양성을 알리고,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즐거움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고창북고등학교와 흥덕중학교에서 '아침 등굣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최하고 전북활동진흥센터와 고창군 흥덕 문화의 집이 주관해 진행했다.

이날 '흥덕 문화의 집'과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속 지도자

들과 '흥덕 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등교하는 학생들과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빵과 캐러밴드를 나눠줬다.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자는 "이번 아침 등굣길 프로젝트가 문화의 집을 홍보하고 지역청소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고창북고와 흥덕중 교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의 편안한 문화놀이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내달 4일 솔티모시 달빛축제 개최

다채로운 전통체험 · 마을탐방 프로그램 운영

11월 4일 내장산 자락에 위치한 솔티, 즉 송죽마을에서 제4회 솔티모시 달빛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솔티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마을 고유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행사다.

특히 마을에 있는 토박이와 꽃다, 솔티야채, 다모야채 등의 공동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열고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축제에서는 전통적인 장례 풍습인 '초빈(草殮)'을 재현하고, 연을 날리던

'마을 연터' 그리고 옛 정취 가득한 '솔티 옛길'을 복원, 이날 개방한다. 더불어 마을잔방과 떡만들기와 마을에서 자생하는 각종 산나물을 활용한 솔티밥상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작품 전시, 마을 구석 구석 둘러보기 등이 진행된다.

솔티마을은 정읍시가 공동체 육성 일환으로 주력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성 확보와 함께 발전해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에서 최최초자 유일하게 80세 어르신들에게 '마을연극'을 지급하고 있다. 또 마을 기업인 '내장산 속모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정음=김대환기자

온 군민이 즐거운 화합 한마당

고창군 '군민의 날' · '군민체육대회' 성료

고창군민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제56회 고창군민의 날'과 '제36회 고창군민체육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28일 고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군민의 날'과 '군민체육대회'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유성열 국회의원,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군의원과 기관사회단체장 선수단 임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전행사로 국악예술단의 대금공연, 한바음 농악단의 농악공연 등이 마련됐으며 축구, 족구, 장년마라톤, 단체출발기,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15종목의 체육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고창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의 장을 수상한 문화체육장 한재영 공

장 흥영표 애환장 김기동 효열장 박경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과 재외군민 모두가 변함없이 지혜와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간다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찾아오는 고창, 와서 살고 싶은 고창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제56회 군민의 날 기념식'과 '제36회 군민 체육대회'가 6만 군민이 고창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화합과 소통 지역 발전을 다짐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단 국제건강기능식품학술대회 참가, 전시·홍보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최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북분자의 기능성과 기능성 제품 홍보를 위해 국제건강기능식품학술대회(ISNFF)에 참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고창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단을 비롯한 전세계 약 40개국의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고창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단은 전라북도와 고창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30억원의 예산으로 북분자에 대해 기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이용 가능성 제품을 개발 산업화 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북분자의 협업조직 가능성에 대한 학술발표와 전시장에서 고창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에 참여한 7개 업체(흥삼베리(대표 유금호) '흥삼베리', 신토북분자(대표 안문규) '행복초', 하랑(대표 박춘근) '블루베리잎차', 삼보죽염(대표 김인석) '북분자죽염', 고창향토덕덕(대



표 김창수) '북분자장 홍도리차', 베리팜(대표 박재숙) '북분자 초코과이', 웰스키치생명공학(대표 이병욱) '북분자 오자정'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시음·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관계자는 "국제건강기능식품학술대회(ISNFF) 참가와 홍보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기능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판매 농가와 기업들의 소득 증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픈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장병2ea/12%, 북분자1ea/13%, 잔 1ea, 오픈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